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여성회

여성회 45주년 | 2025 연례 보고서 | Annual Report | 2024.7-2025.6



제45회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6:00 PM
(Chevy Chase Country Club, Wheeling, IL)

5:00 PM 등록

6:00 PM 1부

개회 사회자 (김호정 출판부장)
축가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지휘 표경진, 반주 정혜원)
1. 봄(비발디 협주곡 '사계' 중) 2. 에델바이스

환영사 박순자 이사장

축사 최은주 시카고한인회 회장

축사 김정한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감사 보고 김미경 감사

회계 보고 크리스틴 윤 회계

차기 이사장 발표 박순자 공천위원장

감사패 수여 (고애선 회장) 박순자 이사장

공로패 수여 (구광자 전 회장/이사장) 고애선 회장

KAWAC Rising Leader Award 고애선 회장
(Crystal Park, Emma Orillo, Hannah Yoon, Kaylee Hwang)

이임사 고애선 회장

제20대 임원 소개 고애선 회장

취임사 박순열 신임 회장

제21대 임원 소개 박순열 신임 회장

라인댄스 공연 여성회 회원부 라인댄스팀 (강사 서명혜)
1. Stand by Your Man 2. Sunny

단체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저녁 식사

7:00 PM 2부

모듬북 공연 여성회 회원부 모듬북반(강사 이애덕)
1. 각시탈 2. 비트홀릭

심해옥 장학금 수여 권오화 장학위원장
(박신영 Shin Young Park)
(이주하 Connor Lee)

축하 공연 소프라노 최명임
1. O Sole Mio 2. 사랑으로

싱어롱 다함께

폐회 사회자

Welcome Remarks | 환영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귀여운 딸이고, 언니와 누나이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그 모든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막중해집니다. 신생 아기에게는 신뢰감을 주어야 하고, 걷기 시작하는 영아기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유아기에는 자신감을, 청소년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감정의 굴곡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즉 자라나는 아이의 교사가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고, 간호사가 되어야 하며, 요리사, event planner, house keeper, 미래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가정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우리 여성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단 이래 44년의 역사를 가진 여성회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움으로 단련하고 내 가정은 물론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모인 여성회는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성회는 45년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동안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여성들의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온 고애선 회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인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여성회를 이끌어 갈 박순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여성회가 한인 동포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찬 격려와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이사장 박순자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여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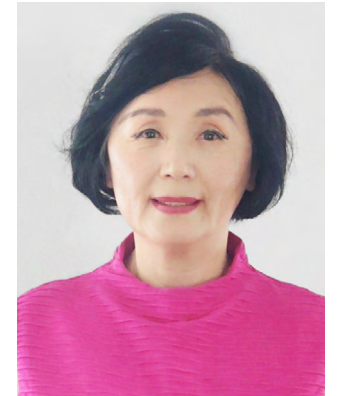
‘꿈과 열정, 창조적 아름다움을 추구해 가는 여성회’라는 표어로 제20대 시카고한인 여성회 회장에 취임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이임사를 쓰게 되어 다시 한번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간 2년간의 시간의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며, 한 순간 순간의 기억들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6월의 눈부신 푸르름과 함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동역하여 주신 임원님들과 항상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성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며 격려해 주셨던 한인 사회의 많은 단체와 단체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의 물결이 밀려올 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꿈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한 시카고한인여성회는 올해 벌써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회장님과 이사장님을 지내셨던 분들은 아직도 여성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많은 조언과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소중한 보석과 같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여성회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니 지난 2년 동안 시카고한인여성회는 한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과 문화 행사,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처음 시도해 보았던 ‘5월 가정의 달’ 행사 등,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임원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헌신 그리고 이사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이었음을 생각하며 저는 이 모든 분의 은혜와 격려에 사랑의 빛진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카고한인여성회는 단지 봉사 단체에 그치지 않고 꿈과 열정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김광섭 시인의 시 ‘저녁에’ 일부를 기억하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더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며 기쁨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순자 이사장님과 함께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박순열 회장님과 더욱 발전하는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으며, 박순열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고애선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

안녕하십니까? 초록이 완연해진 여름, 좋은 날에 여성회 연례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1980년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함께 어우러져 왔습니다. 이러한 큰 단체의 수장이 되고 이끌어 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능력 있는 임원분들, 이사님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회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거의 10여 년을 여성회에서 봉사하며 여성들의 파워가 얼마나 세고 위대한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행사를 열정적으로 해 내며, 임원분들은 이사님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실천을 통하여 지금까지 여성회는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특히 배려하며 디테일하게 일을 추진해 오신 고애선 회장님과 많은 열정과 시도로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박순자 이사장님의 추진력과 헌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전직 이사장님들과 전직 회장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반짝거렸는지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 회기 표어를 ‘함께 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여성회’로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팬데믹 사태 때문에 양적인 성장보다는 내실 있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많은 행사가 계획했던 대로 실행되지 않고 취소 혹은 축소되는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곳곳하게 견뎌온 보람으로 작년 4월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창단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고 그 감동의 울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5월 17일에는 여성회가 주최한 가정의 달 행사에 많은 시카고 한인 교민들이 참석해 여러 가지 공연들을 함께 하며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여성회가 선정한 ‘훌륭한 남편상’에 두 분이 선정되어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카고한인여성회가 시카고 교민 사회를 선도하는 단체로 계속하여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만 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힘든 부분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실패가 와도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배움의 기회로 삼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원동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회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 여성회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을 함께하는 지역 사회, 한인 사회, 또 주류 사회와도 많은 소통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신임 회장 박순열

약력

-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 하얏트 호텔 근무
- 남편의 모토롤라 미국 현지 근무 발령으로 도미(2001년)
- 시카고한인문화원(구 시카고한인문화회관), 사무국장
- 시카고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재무 및 부간사 (3 Terms, 6 Years)
- Site Director, Center for Seniors
- 현 Executive Director, Singing Silver Academy



시 카 고 한 인 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하나로, 미래로! Better Together!

Phone : 773-878-1900 / 615 N Milwaukee Ave. #11 Glenview, IL 60025 / E-mail: 36kaac@gmail.com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시카고한인여성회의 연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5년간의 역사에 걸맞게 잘 구성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카고한인여성회는 특유의 여성스러운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가정적인 면 속에, 어머니로서의 강직함과 매정함, 그리고 진취적이며 가정과 미래를 위해 거침없이 팔을 걷어붙이는 어머니의 힘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자랑스러운면서도 아주 대표적인 한인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는 자체적으로 합창단, 라인댄스, 모듬북 등 활발한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골든클럽, 교육부, 문화부, 봉사부, 출판부, 합창부, 홍보부, 회원부 등 8개 부서를 활용하여 기성세대와 차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업 영역과 구성원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은 지난해 권오화 단장님이 이끄는 여성회 합창단의 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Skokie에서의 대 성공적인 35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밀알선교단, 암환우회 등 다른 단체의 성공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의미있는 봉사를 시행하고 있고 시카고한인회에 리모델링을 위한 기금을 도네이션 하는 등 다방면으로 동포 사회를 위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은 봉사를 하신 고애선 회장님과 임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박순열 신임 회장님께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열정적이며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순자 이사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21대 시카고 한인여성회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받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한인 동포 사회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동포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 화이팅!!!

시카고한인회 회장 최은주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icago



Consul General

시카고한인여성회의 2025년도 연례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합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는 1980년 창설된 이래 45년간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꾸준히 이바지해왔습니다. 문학, 노래 및 댄스 등 다방면에 걸친 친목 활동은 회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고 구성원 간 우의를 두텁게 하였으며, 이민자 교육을 비롯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따스한 이웃의 정을 전파하였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연륜을 쌓아온 시카고 한인여성회는 이제 지역 한인여성들의 안식처인 동시에 동포사회 내 또 하나의 버팀목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은 지난 2년 간에도 여성회는 다양한 활동 재개로 그간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위상을 더욱 높여 왔습니다. 그동안 시카고한인여성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오신 고애선 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박순열 신임 회장님의 취임에도 진심어린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박순열 신임 회장님과 박순자 이사장님의 리더십 하에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여성회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김 정 한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822-9485 Fax: (312) 822-9849

- 2024년
- 8/17 제7차 정기 임원회 및 임원 수련회

8/24 시카고한국무용단 정기 공연 ‘흥부와 놀부’ 관람

9/14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홀 개관식 참석

9/20 한인서로돕기센터 두레 Gala 행사 참석

10/5 뮤지컬 ‘길’(The Road) 공연 참석

10/10 제8차 정기 임원회

11/23 임시 임원회

12/1 안젤라 라인댄스 연말 파티 참석

12/6 간호사 협회 연말 행사 참석

12/7 시카고한인문화원 Gala 참석

12/15 여성회 연말 감사의 밤 행사

12/22 시카고한국무용단 Gala 참석

12/28 시카고한인회 송년의 밤 참석
- 2025년
- 1/13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미주 한인 이민 122주년 기념)

1/16 신년 하례식 및 제9차 정기 임원회

1/24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감사의 밤 참석

3/1 3.1절 기념식 참석(시카고한인회 106주년)

3/6 제10차 정기 임원회

3/15 한인서로돕기센터 두레 Open House 참석

3/13 5월 가정의 달 행사 Task Force Team 미팅

4/13 교육부 주최, 미주 한인사 교육 종강식

4/24 제11차 정기 임원회

5/17 ‘가정의 달 행사’ 개최

5/27 임시임원회 Zoom 미팅

6/17 제12차 정기 임원회

6/22 제45회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고애선 이임/ 박순열 취임)



- 7차 정기 임원회 (8/17/2024, 쌍용 식당)
- 가을 정기 이사회(9/5) 관련 사항 토의함

· 차세대 \$5,000 기금 사용 관련: 교육부와 상의해보기로 함

· 고 이선희 기금: 의미 있는 여성회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함

· 다른 단체 행사 참석 보조: 참가비 절반을 보조하되, 참가인원 5인 이상인 경우, 보조금 50%를 1/N 하기로 함

· 오후 4시부터 육원자 전 이사장의 여성회 정관 강의가 있었음
- 8차 정기 임원회 (10/10/2024, 장충동 식당)
- 2024 감사의 밤 행사(12/15) 관련하여 임원들의 임무가 주어짐.

· 봄 정기 이사회: 2025년 4월 3일(목) Lone Tree Manor에서, 연례총회: 6월 22일(일) Chevy Chase에서 개최하기로 함

· 2025년 5월 ‘가정의 달 행사’ 진행하기로 결정

- 임시 임원회 (11/23/2024, 장충동 식당)
- 감사의 밤 행사 관련 논의

· 현재 인준이 안 된 이사들은 4월 이사회 때 인준을 받기로 하고, 준 이사 신분으로 투표권은 없으나, 행사 참가비를 이사에 준하는 가격으로 받기로 함

- 9차 정기 임원회 (1/16/2025, 쌍용 식당)
- 2024 여성회 감사의 밤 행사 평가

· 5월 가정의 달 행사 관련 TFT 구성하기로 함, 글짓기 행사는 시간관계상 다음 회기로 넘기로 함

- 10차 정기 임원회 (3/6/2025, 장충동 식당)
- 5월 가정의 달 행사 관련 TFT 구성: 5월17일 (토) 오후 4시 비스코 홀, 지면 및 방송 광고, 효자/효부/효롱한 남편상, 이사회 준비 관련 내용 논의

행사 관련 비용 \$3,000는 실행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좋은 부모 아카데미, 김치 축제는 다음 회기에 진행기로 함

- 11차 정기 임원회 (4/24/2025, 장충동 식당)
- 봄 정기 이사회 평가와 가정의 달 행사, 연례 총회 관련 논의

· Lone Tree Manor의 음식 문제 제기되어 9월 이사회는 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개최기로 함, 교육부 산하 Youth Committee 활동 연례 보고서 한 페이지에 신기로 함

- 임시 임원회 (5/27/2025, 온라인 미팅)
- 연례 총회 세부 사항 논의 및 가정의 달 행사 평가

· 20대 여성회 마지막 임원회 6/17 열기로 함

- 12차 정기 임원회 (6/17/2025, 장충동 식당)
- 연례 총회 준비 최종 점검 및 20대 임원들 노고 치하



Annual Meeting | 연례 총회

2024년도 연례 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제44회 연례 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6월 23일(일) 오후 6시 윌링 소재 Chevy Chase에서 열렸다. 여성회 이사들과 외부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미라 총무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합창부의 축가로 막을 열었다. 고애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일 년 간의 성공적인 행사에 함께해준 여성회 임원, 이사와 동포 사회에 감사를 전하고, 남은 일 년의 임기를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도전하자고 말했다. 최은주 한인회장과 김정환 총영사의 축사, 감사보고와 회계보고도 이어졌다. 육원자 이사장 대행은 여성회 차기 회장으로 박순열 서기가 선정됐음을 발표했다.

여성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도 이어졌다. 심형란 이사장과 장순진 이사에게는 감사패가, 권오화 여성회 합창단장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되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심형란 이사장의 이임사를 정정희 이사회 총무가 대독했고,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박순자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가 뒤를 이었다. 박순자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화합과 끈기, 지혜와 미모를 갖춘 여성들이 모인 여성회에서 제18대 이사장으로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많은 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2부에서는 권오화 장학위원장의 ‘심해옥 장학금’ 수여식과, 여성회 합창단 창립 35주년 기념 음악회 수익금 일부(\$5,000)를 여성회의 차세대 교육 지원금으로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어 회원부 프로그램인 라인댄스와 모듬북 공연, 바리톤 이수영씨의 감미로운 노래와 이은애 봉사부 차장의 피아노 반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싱어롱 시간에 ‘10월의 멋진 날에’를 ‘6월의 멋진 날에’로 가사를 고쳐 부르며 잊지 못할 2024년 6월 연례 총회의 막을 내렸다.

이사회 | Board Meetings

(이사장: 박순자, 총무: 정정희, 서기: 정지연)

2024년 가을 정기 이사회

가을 정기 이사회가 9월 5일(목) 오후 6시, 8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인문화회관 마루에서 열렸다. 정정희 이사회 총무의 사회와 함께 여성회 합창단의 '별' 과 '고향의 봄' 으로 1부를 시작했고, 이사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감사보고, 회장 사업 보고 및 부서별 보고가 차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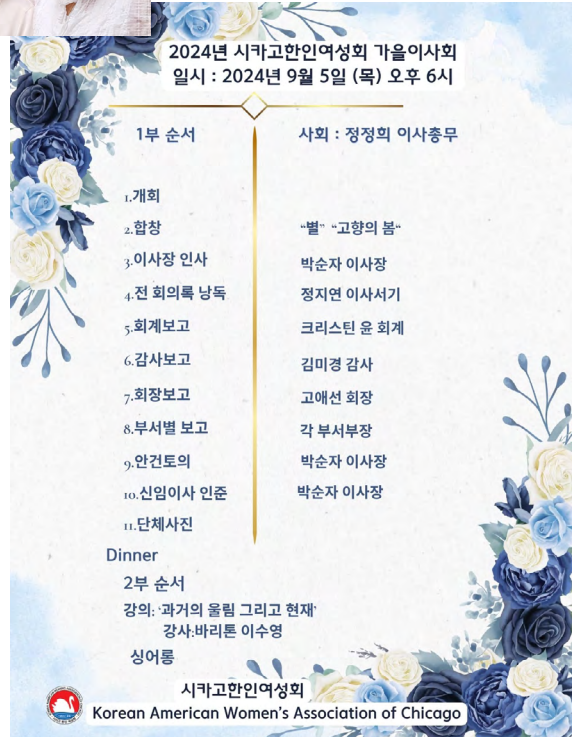
안건 토의 시간에는 한인회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여성회의 \$5,000 지원 관련 토의가 있었고,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어 신입 이사 16명에 대한 인준이 있었고, 박순자 이사장이 준비한 여성회 로고가 들어간 에코백이 선물로 주어졌다.

2부에는 바리톤 이수영 강사의 '과거의 울림, 그리고 현재'라는 주제로 바로크 시대부터 현재까지 클래식 음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포르투갈어로 '기이하게 생긴 진주'라는 뜻의 Baroque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화려한 장식과 풍부한 표현력이 주를 이루었고, 모차르트로 대변되는 고전주의, 슈베르트, 슈만 등의 낭만주의에 이어 1900년대 이후의 현대음악은 실생활의 소음들까지 음악적으로 활용하는 다양성을 보인다고 설명해 음악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마지막으로 이수영 강사는 "과거의 울림이 현재의 근간이 되듯 여성회도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울림을 가지고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는 여성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은 그리운 이를 생각나게 하는 노래 '얼굴'을 부르며 2024년 가을 정기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신입 이사 명단(총 16명)

영옥자, 이해숙, 백지숙, 송영애, 장향자, 조옥순, 송승현, 이주상, 김순영, 송안나, 이안나, 김정자, 김현정, 이해옥, 홍영숙, 김승연



Board Meetings | 이사회

2025년 봄 정기이사회

봄 정기 이사회가 4월 3일(목) 오후 6시 나일스에 있는 Lone Tree Manor에서 80여 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정희 이사회 총무의 사회와 함께 여성회 합창단의 '봄봄봄', '바람의 노래'로 막을 열었고, 박순자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서기 보고, 회계 보고, 감사 보고, 회장 보고 및 각 부서별 보고가 차례로 있었다. 이어 신입 이사 8명에 대한 인준과 함께 2026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차기 이사장 인준 절차도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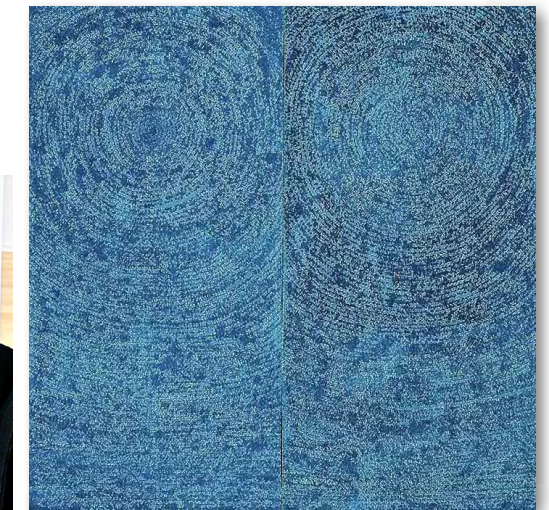
차기 이사장으로 인준된 고애선 현 회장은 "지금까지 함께한 임원과 이사들의 도움에 큰 힘을 얻었다. 그 사랑의 빛을 돌려드리는데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부 순서에서는 서양 화가이자 미술 심리 치료 전문가인 홍성은 강사의 '추상 미술을 한국의 서정성으로 승화시킨 거장 수화(樹畵) 김환기'라는 주제로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의 일생과 작품을 알아가는 인문학 강의 시간을 가졌다.

'나무와 이야기하다'라는 뜻의 '호'를 가진 수화 김환기는 평생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작품 세계를 펼쳐왔으며, 작품 <우주>는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역사상 최고가인 132억 원에 팔리는 이변을 낳았다. 작품 <우주>는 가로 127cm, 세로 254cm 패널 두 개를 나란히 붙인 그림으로, 아내 김향안은 이 작품 제목을 <너와 나>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아내 김향안 씨의 뮤즈와 아내로서의 내조를 들으며 여성의 역할에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점과 색채를 통해 자연과 우주를 표현한 김환기의 예술 기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작품 감상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끝으로, 크로마하프 연주팀의 반주에 맞춰 '정든 그 노래'를 부르며, 정든 사람들이 모여 헤어짐이 아쉬웠던 2025년 봄 정기 이사회를 마쳤다.

신입 이사 명단(총 8명)

김 안젤라, 김일우, 김 세실리아, 김 키미, 박 레지나, 현 소피아, 신난숙, 유영신



연말 파티 | End of Year Party

2024년도 연말 '감사의 밤' 행사

갑진년 2024년 청룡의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여성회 '감사의 밤' 행사가 12월 15일(일) 오후 6시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시카고 지역 주요 인사와 여성회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호정 출판부장의 사회로 여성회 합창단의 축하 'Carol of the Bells', 'Fly Me to the Moon'으로 문을 열었다. 고애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4월 열린 합창부 35주년 기념 음악회의 감동을 되새기고, 앞으로 차세대 프로그램을 확대해 젊은 회원 영입에 주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여성회를 응원하고 격려해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박순자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한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의 축사가 있

었다. 특히 최은주 회장은 "시카고에 많은 한인 단체가 있지만 여성회야말로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멋진 단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원 소개와 사진 촬영 후, 여성회 라인댄스 공연, 모듬북 공연, 크로마하프 연주 등이 이어졌으며, 제인 전 부회장과 이진현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 시간에서는 다양한 게임과 경품 추첨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인들이 눈을 가린 채 남편들의 손을 만져보고 자기 남편을 찾아야 하는 '남편 찾기 게임'은 아슬아슬한 스릴과 폭소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웃음과 재미와 감동이 어우러졌던 여성회 '감사의 밤' 행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2025년의 힘찬 출발을 기약하며 마무리됐다.



Membership | 회원부

(부장: 제인 전, 차장: 서미선)

라인댄스와 모듬북 클래스로 생활의 활력을!



회원부의 대표 프로그램인 라인댄스와 모듬북반은 활발한 클래스 운영으로 회원들의 삶에 기쁨을 더하며 여가 생활을 알차게 영위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주고 백 세 시대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매주 운영되고 있다. 여성회의 연간 주요 행사인 6월 연례 총회와 12월 연말 감사의 밤 공연은 물론, 한인 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동참하며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회원부는, 한인회 주최 8.15 광복절 기념행사(2024.8.15)에서 모듬북 공연으로 기념식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데 일조를 했으며, 타 라인댄스팀 행사에도 출연해 자리를 빛냈다. 이 밖에도 양로원 방문 공연, 여성회 가정의 달 행사 공연, 회원들의 축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봉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부의 모든 클래스는 학기제(분기별) 상시 반으로 새 회원도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으며, 초보자도 기존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클래스에 언제든지 동참하여 생활의 활력과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와 함께 봉사의 기회도 경험하는 알찬 기회를 누리 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라인댄스 (강사 서명혜): 매주 수 2:30 PM 문화회관 #9820 - 수강료 \$50/분기
토요 모듬북 (강사 이애덕): 매주 토 11:30 AM 문화회관 #9820 - 수강료 \$240/학기 (북 악기 대여료 별도, \$10/월)
문의: (847)990-0554, DreamHomeWithJane@gmail.com (773)988-8822, UniversalTravel02@yahoo.com



쭌바, 난민 돕기 기금 모금 행사

2024년 9월 22일 오후 3시 시카고한인문화원 마루에서 난민 돕기 기금 모금을 위한 쭌바 행사가 프로페셔널 강사 Roland Corbett가 초청된 가운데 일반인과 학생들, 여성회 이사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행사의 의미와 재미를 더했다.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한 사람들도 기금 모금에 뜻을 함께해 총 기금 \$2,233.01을 모았고 전액이 시카고 학생 난민 연맹에 기증되었다.

이 행사는 교육부에 소속된 학생회 임원들, Crystal Park, Emma Orillo, Hannah Yoon, Kaylee Hwang의 많은 봉사와 노력으로 성황리에 치러졌으며 큰 액수의 기금을 뜻깊게 기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행사였다. 지속적인 학생회 임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미주 한인사 교육〉 성황리에 개최

여성회 교육부와 시카고 한국교육원이 공동 주관한 ‘미주 한인사 교육’ 종강식이 2025년 4월 13일 (토) 시카고한인문화원 교육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생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고은경 교수의 지도로 6개월 동안 학습해 온 학생들이 ‘미주 한인사’를 주제로 각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주제는 ‘독도,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 ‘한국의 민주화 과정’, ‘IMF 이후 이민자들의 직업 이야기’, ‘자신의 가족 이민사’ 등 다양했고, 이는 학생들의 큰 흥미와 활발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류에 관심을 가진 현지 학생들이 Kpop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다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10월에 개강한 이 강의는 총 12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Claire O'Malley, Jordan Kwonwoo Hur, Crystal Yuri Park, Daniel Kim, Diane Song, Soon-Ja Kim 등 6명의 수강생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고애선 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았다.

강의를 맡은 고은경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미주 한인사 강의 시리즈는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성찰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주 한인사 수업은 한국어와 미주 한인사를 배우며 역사 속의 인물 탐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2024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4월 13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이뤄졌다. 처음과 마지막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은 zoom으로 진행되었다.



My Experience with KAWAC from Youth Committee Members

Crystal Park | 박유리
My name is Crystal Park, and I will be attending Harvard College in Cambridge, Massachusetts



this fall, where I plan to pursue a joint concentration in Government and East Asian Studies. My long-term goal is to work in public policy, advocating for underrepresented communities and creating meaningful change through legislation and outreach. As a proud Korean American, I've always been deeply passionate about sharing and celebrating my culture. Whether performing traditional Korean dance, founding my school's AAPI Club to uplift Asian American voices, or leading cultural initiatives in my community, I've sought to make Korean heritage more visible and appreciated. That's why joining KAWAC felt like a natural fit—it's a space where I can continue embracing my roots, uplifting others, and contributing to a collective mission I believe in.

Through KAWAC, I've been able to support diverse communities by participating in meaningful fundraising efforts, helping expand access to cultural education, and promoting language learning through resources like the new 'Korean American Community History' book. From organizing and leading events to simply sharing what I love, KAWAC has empowered me to both grow and give back in powerful ways.

I want to sincerely thank KAWAC and

all the dedicated leaders and mentors who make this work possible—your commitment to empowering youth and preserving culture is inspiring. To other students: this is a truly special opportunity to work with KAWAC. You'll not only learn and lead but also become part of a community that values your voice and your impact. I hope you embrace it fu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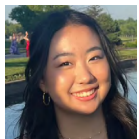
Emma Orillo | 에마 오릴로
My name is Emma Orillo, and I will be attending College of the Holy Cross in Worcester, MA this fall. I plan on majoring in Biology with concentrations in Biochemistry and Business. In the future, I hope to work in functional medicine or the food industry, helping Americans find the root cause of their illnesses through holistic nutrition rather than prescription medication.



Being a KAWAC youth member has been an incredibly rewarding and enriching experience. Through volunteer work, cultural events, and leadership opportunities, I have had the ability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my Korean American identity while building strong connections with peers who share similar backgrounds. Between organizing community events such as Zum-Zum Zumba or participating in workshops with other inspirational leaders such as Monica Felix, I've grown more confident and inspired to give back. KAWAC has not only empowered me as a young leader but also helped me feel seen and supported in a meaningful

way, especially through the 7 week KACH (Korean American Community History) Course. Furthermore, with the leadership skills I've enhanced as a KAWAC member, I plan on advocating for stricter food laws/ regulations to match other countries after college.

Kaylee Hwang | 황지민
My name is Kaylee Hwang, and I recently graduated from Illinois Math and Science Academy. Next year, I will be studying biomedical engineering at Columbia University.



On the KAWAC Youth Board, I learned how to support the Korean community by collaborating with other young Korean women. I enjoyed organizing and planning events, and this experience made me into a better communicator and teammate.

Hannah Yoon | 윤채은
My name is Hannah Yoon. As an ambassador for the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I had the opportunity to plan and lead events, such as Zumba classes for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network at large-scale events. Throughout my experience, I was purposeful in creating open and welcome environments for Korean American women. I was able to meet really great people during my journey as a KAWAC leader and am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Moving forward, I plan to attend Boston University to study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학생회 소식

지난 임기 학생회의 활동을 이을 새 학생회 임원 명단이 발표되었다. Diane Song과 Jordan Hur가 공동으로 회장직을 맡아 봉사할 예정인데, 특히 Diane Song은 지난 5월에 있었던 '가정의 달 행사'에서 소리와 창작 무용의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차기 학생회 임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President:
Diane Song
Buffalo Grove High School



President:
Jordan Kwonwoo Hur
New Trier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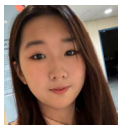
Vice President:
Sarah Chang
Glenbrook North High School



Vice President:
Elie Koo
Barrington High School



Vice President:
Emma Kyuyon Lee
Walter Payton College Preparatory High School



Secretary:
Jiwoo Cheong
William Fremd High School



Treasurer:
Aiden Kang
New Trier High School

합창부 | Choir

(부장: 지재란, 차장: 김정옥)



올해로 창단 36주년이 되는 합창부는 배움의 열정과 친목, 사회 참여와 봉사로 보람을 느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모여 발성 연습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배우고 있다. 여성회 연례 총회와 연말 감사의 밤과 같은 자체 행사는 물론, 삼일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식 등 한인 동포 단체의 각종 행사에서도 활발한 공연을 펼치면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창부가 이처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활동 내용

- 8. 5 (월) 개학
- 8.15 (목) 한인회 주최, 광복절 행사에 합창과 연극
- 9. 5 (목) 가을 이사회 합창: '별', '나의 살던 고향'
- 12.15(일) 여성회 감사의 밤 합창: 'Carol of the Bells', 'Fly to the Moon'
- 12.16(월) 겨울 방학 시작



2025년도 활동 내용

- 1. 25(토) 나일스 양로원 방문 공연
- 2. 3 (월) 개학, 친교와 디너 후 연습 시작
- 4. 3 (목) 봄 이사회 합창: '봄봄봄', '바람의 노래'
- 5. 17(토) 여성회 가정의 달 행사 합창: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바람의 노래'
- 6. 22(일) 여성회 연례 총회 합창: '봄'(비발디 협주곡 '사계' 중), '에델바이스'
- 6. 25(수) 6.25행사 합창 예정: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2025.4.21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창단 36주년 기념〉

지휘: 표경진 | 반주: 정혜원
단장: 권오화 | 부단장: 연속자, 김호정
고문: 구광자, 박순자, 김조숙

연습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약속의 교회, 6300 Capitol Dr. Wheeling, IL
문의: (773) 396-2609 | jaeran1006@gmail.com



〈2024.8.15 광복절 행사에서 합창과 연극〉



〈2024.9.5 가을 이사회〉



〈2024.12.15 여성회 연말 파티 '감사의 밤'〉



〈2025.4.3 가을 이사회〉



〈2025.5.17 가정의 달 행사〉



Golden Club | 골든클럽

(부장: 이광자, 차장: 김정아)



뮤지컬로 만난 Joseph의 'Any Dream Will Do'

골든 클럽은 2025년 3월 15일(토) 링컨사이에 위치한 Marriott Theatre에서 여성회 회원과 가족들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지컬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를 관람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각색한 이 작품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만 지나치게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 벌어지는 형제간의 시기와 갈등, 용서를 코믹하고 밝은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하여 관객과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박수치는 즐거

운 무대를 경험하였다. 이 뮤지컬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아들인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며 특별히 편애한 행동들이 다른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도 결국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재회하는 모습은 관객들의 코끝을 찡하게 하면서 감동을 주는 'Any Dream Will Do'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Andrew Lloyd Webber

(1948.3~)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를 관람하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뮤지컬의 절정을 이루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곡 'Any dream will do'의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이다. 영국 태생의 작곡가이자 뮤지컬 극장의 감독이기도 한 그는 우리가 들으면 아~하고 감탄할 만한 수많은 뮤지컬 명곡을 작곡했다. 킷츠(Cats)의 'Memory',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의 'The Music of the Night'와 'All I Ask of You'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에비타(Evita)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등 로이드 웨버가 작곡한 곡들은 브로드웨이에서 10년 이상 공연되고, 에미(Emmy)와 그라미(Grammy)를 비롯한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다.

Any dream will Do

I closed my eyes, drew back the curtain
To see for certain, what I thought I knew.
Far, far away, someone was weeping,
But the world was sleeping. Any dream will do.

I wore my coat, with golden lining,
Bright colours shining, wonderful and new.
And in the east, the dawn was breaking,
And the world was waking. Any dream will do.

A crash of drums, a flash of light,
My golden coat, flew out of sight.
The colours faded into darkness,
I was left alone.

May I return to the beginning?
The light is dimming, and the dream is too.
The world and I, we are still waiting,
Still hesitating. Any dream will do.



'재미있는 시조의 밤' 행사 개최

매난국죽(梅蘭菊竹) 가운데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매화(梅花)가 꽃망울을 틔워야 비로소 '봄'이라 한다. 그런 매화가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한 2025년 3월 22일, '재미있는 시조(Sijo)'의 밤' 행사가 문화부 주최로 시카고한인문화원 마루에서 열렸다.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이자 일리노이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루시 박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인 동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의 기본 구조와 형식을 배우고 한글과 영어로 소개된 다양한 시조 작품을 접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인들이 시조를 배우며 직접 창작한 작품이 소개된 부분이었다. 그중 2013년 세종 글짓기 대회 1등 상을 받은 로버트 산토스(Roberto Santos)의 'Still American'은 영어로 쓴 시조지만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기에 충분했으며, 우리의 시조가 한국 고유의 정형시로서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즐기는 장르로 자리 잡아감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 조선시대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청산리 벽계수야'와 정몽주의 '단심가' 및 이방원의 '하어가' 등 우리의 옛시조를 국문과 영문으로 감상하면서 오랜만에 우리의 시조를 접해보는 품위 있는 시간도 가졌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시조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의 작품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루시 박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의 시조 창작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 자리에서 "시조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다만 시조를 쓰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시조 창작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20여 년간 우리 고유의 시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연륜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Three lines, 45 syllables

■ The basic standard:				
First line	3	4	4	4
Second line	3	4	4	4
Third line	3	5	4	3
■ Variants:				
First line	2-5	3-6	2-5	4-6
Second line	1-5	3-6	2-5	4-6
Third line	3	5-9	4-5	3-4

CHUNG MONGJU (1337-1392)

Though this body die and die,
it may die a hundred times,
my white bones become but dust,
what's called soul exist or not:
for my lord, no part of this red heart
would ever change. How could it?

이 몸이 죽고 죽어 일 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What makes a good sijo...

- **Structure** is important, but allow for "poetic license"
- **Word choice:** the right word at the right place
- **Capture emotion** and transfer that feeling to the reader
- **Craft clear imagery:** clarity is essential, avoid ambiguity
- **Your main topic and message must be clear** to the reader
- Try to write **your personal experience**

Still American

They say go, return to land that I don't know. It makes no sense.
Born and raised American, so Mexico is still foreign.
Culture kept, but this is my home. Immigrant, no: Hispanic.

Robert Santos (12th gr. Laredo, TX)
2013 first place, Sejong Writing Competition

재미있는 시조의 밤

시조 한숙 회장 김영숙

시카고한인여성회 문학회에서는 세종문화회 Lucy Park 교수를 모시고 시조 강연회를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멋지고 감칠맛 나는 시조를 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개성 넘치는 시조 창작을 통해 삶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강사: 루시 박 교수

일 시: 2025년 3월 22일 (토) 오후 4시
장 소: 시카고한인문화원 '마루' 9600 Capitol Dr., Wheeling, IL.
참가비: \$20 (식사 포함)
준비물: 펜과 노트
예약처: 김영숙 (773) 339-2927 고미숙 (773) 556-7816
마 감: 식사 준비 관계로 3월 15일 (토)까지 예약 바랍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고미숙, 이사장 박순자 kawaoc@gmail.com www.kawac.org

Lucy Park
SIJO: KOREA'S POETRY

장애우와 함께하는 볼링대회

봉사부는 2024년 10월 26일 알링턴 하이츠 소재 Beverly Lane 볼링장에서 밀알선교단 장애우들과 볼링 대회를 함께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애우와 그 가족들, 여성회 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소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과 함께 친교와 볼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밀알 선교단 단장 남성우 목사는 "장애우들이 볼링을 하며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라며 여성회의 후원에 감사를 표했고, 고애선 회장은 "앞으로도 여성회가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가 함께 손잡아주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회와 함께하는 밀알 장애우 볼링대회'는 지난 2017년 시작, 매년 열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중단된 이후 올해 재개되었다. 봉사부는 앞으로도 장애우 볼링대회에 동참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애우들은 이날 봉사부에서 특별히 준비한 할로윈데이 구디백(goodie bag)까지 선물로 받아 기쁨을 더했다.

한편, 밀알 선교단은 장애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단체로 지난 1994년 7월 24일 창단되었다. 현재 2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후원 행사를 통해 팔레타인에 장애인 건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맞이 나일스 양로원 방문

한국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봉사부는 2025년 1월 25일 나일스 양로원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숙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여성회 임원들은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세배드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고, 고애선 회장과 박순자 이사장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더했다. 여성회 합창부의 설날 노래로 시작해 가야금 병창, 라인댄스, 모듬북 공연, 크로마하프 연주, 헤세드 워십댄스 실버 선교단의 무대 등이 이어졌다. 특히 양로원 어르신들이 참여한 노래자랑은 모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다. 박충용 어르신, 이영순 어르신의 '주기도문'과 김정숙 어르신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가 장내를 가득 메우며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 여성회 임원들은 준비해 간 떡과 양말을 선물로 드리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다 같이 '오빠 생각'을 부르며 고국의 설 명절을 기억하고 정을 나누는 훈훈한 속에 설맞이 양로원 방문 행사를 마쳤다.



가정의 달 행사 | Family Month Event

5월 '가정의 달 행사' 성황리에 개최

여성회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 온 '가정의 달 행사'가 2025년 5월 17일 오후 4시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홀에서 여성회 회원들과 교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순열 서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여성회 합창단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과 '바람의 노래'로 문을 열었다. 이어 내빈 소개와 함께 고애선 회장, 박순자 이사장의 환영사, 최은주 시카고한인회 회장의 축사와 김정환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의 축사(김인수 동포 담당 영사 대독)가 이어져 행사를 뜻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훌륭한 남편상' 시상식이 진행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보며 가정을 지켜온 이강엽 씨와 이문섭 씨가 수상자로 선정

되어 여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졌다. 여성회 모듬북 공연과 라인댄스,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꼭두각시춤과 소고춤, 박주미 국악인과 딸 Diane Song의 협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져 참가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 후에는 여성회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고, 모든 참석자에게 선물도 증정되어 따뜻한 공동체의 정을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교민들은 "이처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가 매년 지속되기를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고, 여성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Family Month Event | 가정의 달 행사



시카고한인여성회
'가정의 달 행사'

4:00 리셉션, 포토존 사진 촬영

4:30 개회
애국가 제창
합창

환영사
박순자 이사장

축사
최은주 시카고한인회 회장
김정환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시상식 (훌륭한 남편, 이강엽, 이문섭)
단체 사진 촬영
축하공연

5:50 식사
7:00 폐회

사회자: 박순열 서기
다같이
시카고한인여성회 합창단 (지휘: 표경진, 피아노: 정혜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바람의 노래

고애선 회장
박순자 이사장
최은주 시카고한인회 회장
김정환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다같이

모듬북
시카고한인여성회 토요일모듬북 (강사: 이애덕)
비빔장, 아름다운 나라

한국 무용
시카고한국무용단 (단장: 이애덕)
꼭두각시 (지도 교사: 김유진)

라인댄스
시카고한인여성회 수요일라인댄스 (강사: 서명혜)
Amazing Mambo, Always Remember

한국 무용
시카고한국무용단 (단장: 이애덕)
소고춤 (지도 교사: 이한나)

소리와 창작 무용
박주미와 Diane Song
아리랑 아리랑요, 희망의 노래

시카고한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Chicago



〈훌륭한 남편상〉 수상자 | Outstanding Husband Awardee

여성회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와 사랑을 실천하며 주위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훌륭한 남편상'을 수상하신 이강업, 이문섭 두 분의 귀한 사연을 전합니다.



이문섭 (박양자 부부)

질문 1.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이대 앞길에서 만났는데 6.25 피난 시 경기도 용인 근처 백암국민학교 같이 다닌 인연이 있어 반가운 만남이었다. 그러나 더 큰 인연은 부모 친척들 집안 모두가 잘 아는 관계로 오래 사귀게 되었다.

질문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가장 고마웠던 때는 언제였으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내는 내가 안정된 직장인(엔지니어)으로 미국 이민 와 생활하다가 각종 개인 사업을 시도하면서 힘들었을 때 조용히 내조하며 두 아들을 잘 키워주어 고맙다. 그러나 10여 년 전 집 계단에서 낙상하여 많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병상에 있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훌륭한 남편상' 추천의 글

몸이 약한 부인 박양자 권사는 지난 10년간 여러 번 낙상을 하셔서 양로원을 전전했다. 그런 부인을 휠체어에 태워 끌고다니며, 교회, 쇼핑, 봄나들이 꽃구경도 시켜드린다.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라며. 큰 세탁소를 두 개나 운영하는 바쁜 분인데 부인이 해주던 음식 맛을 찾아 손수 장을 보고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배워 각종 요리를 하신다. 그래도 부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감사로 일주일에 5번씩 부인을 찾아가 음식을 손수 먹이며 운동도 같이 하신다. 한번

질문 3. 최근 이혼과 졸혼 등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두 분은 반세기 넘게 아름답게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 둘의 만남은 남들이 말하는 ‘천생연분’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축복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50여 년 넘게 미국 사는 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힘껏 하나님과 이웃 섬기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오늘까지 부부의 연을 유지해 온 것 같다. 지난날 뒤돌아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질문 4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꿈/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80이 넘는 우리네 꿈은 건강과 자식 손자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맺어준 친구들 그리고 이웃사촌들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쁜 소식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가는데 6시간씩 소요된다.

오랜 세월의 돌봄으로 본인의 건강도 악화됐다. 허리가 망가지고, 눈, 치아도 교정을 해야했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했다. 골프를 좋아하셔서 몸관리도 잘해야 했고 식도락으로 맛을 찾아 직접 김치까지 손수 담그고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시며 이웃을 자주 초대해 대접한다. 부인이 위급해 병원에 실려가면 달려가 부인을 안심시키고 회복돼 미소 짓는 부인의 모습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장로님을 칭송하는 분들이 많다. 훌륭한 남편상으로 추천합니다.

고애선 회장의 노고와 수고를 치하드리며
박순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제11대 회장 및 제14대 이사장
시카고 한인문화원 전 회장 및 이사장

강영희



Outstanding Husband Awardee | 〈훌륭한 남편상〉 수상자



이강업 (구광자 부부)

질문 1. 두 분은 언제, 어떻게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한국에 나간다고 하니 주위 분들이 중매를 많이 했다. 내노라하는 분들의 딸을 소개해 12명의 경쟁자가 등장했는데, 양가를 잘 아는 아내(구광자)의 이모가 중매했다. 조부모님, 부모님 모두 아내가 복스럽게 생기고 당시 인기 있던 이대 가정과 출신 아내를 선택하셔서 1967년 3월 29일 결혼했다. 결혼을 결정한 나는 my darling 구광자를 위해 빨간 색깔의 화려한 카드를 사 보내기도 했다.

질문 2.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가장 고마웠던 때는 언제였으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아내는 시부모님은 물론 시할아버지도 극진히 모셨다. 3교대로 밤낮 없이 일하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년 휴가 때는 시부

'훌륭한 남편상' 추천의 글

"사랑하는 우리 착한 남편 이강업"

효령대군 18대손, 만손자 만아들로 귀하게 태어난 올해 88세 내 남편, 결혼 58주년을 맞게 되는 오랜 동반자입니다. 요즘은 나를 돌보느라 이곳저곳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운전해 주지요. 빨래, 설거지, 쓰레기통 관리 등 집안일도 마다치 않고 돕는 내 남편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몸이 성할 땐 정성스레 준비한 찬반으로 식사하던 귀한 남편, 지금은 “여보, 있는 대로 먹읍시다”라며 있는 그대로, 혹은 식당에서 남겨온 음식도 감사히 잘 먹습니다. 더더욱 안쓰럽지요. 외출 시, “넥타이를 매야 해?”라고 자주 묻습니다. 그럼 “아니 괜찮아, 아무거나 편한 대로 입어요. 당신은 잘 생겨서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는 분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진 찍을 때도 꼭 미소를 지으면 돼요.” 특히 먼 길이나 밤 운전을 꺼리는 남편을 많이 부추깁니다.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길을 아니까 가르쳐줄게요. 우리 일

모를 초청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손수 준비해 드리곤 했다. 시할아버님을 초청한 적도 있다. 고생을 많이 한 나의 반려자, 고맙기 짝이 없다. 워낙 머리가 좋은 그녀는 나의 직장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맙고 사랑하오. 내 사랑아!

질문 3. 최근 이혼과 졸혼 등 전통적인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두 분은 반세기 넘게 아름답게 부부의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정해주신 운명의 내 아내, 지금은 몸이 불편해 내가 더욱 도와줘야 할 형편이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서로의 동반자이자 버팀목이다. 두 뿌리가 서로 엉켜 같이 가지를 움켜쥐고 같이 자라고 있다.

질문 4.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꿈/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우리 서로가 고목이더라도 오래오래 같이 하기를 바란다. 우리 둘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히 자립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찍 집에 올 거예요”라고요. 저는 형편상 운전도 못 하고 부엌도 문을 닫았어요. 가든 일도 인계했죠. 먼저 올게니 soil을 위해 티백 찌꺼기, 바나나, 과일, 당근 껍질 등을 땅에 묻는 일, 씨를 받고 뿌리는 일, 모종 심는 일 등 모두 남편이 다 합니다. 수확하는 기쁨도 알게 했지요. 하루는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건강해야 당신을 오래 돌봐줄 수 있을텐데....” 착한 우리 남편, 자기도 88세로 매사가 힘이 들텐데 번번이 나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고맙기 짝이 없지요. 저는 처음에는 ‘훌륭한 남편상’ 추천을 반대했지만, He deserves this honorable award!!



고애선 회장님의 이임과
박순열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인여성회
제9대 회장/제10대 이사장

구광자



박규영 전 회장/이사장 시카고 방문



여성회 제14대 회장(2011~2013)과 제15대 이사장(2018~2020)을 역임한 박규영 전 이사장이 모처럼 시카고를 방문해 2024년 9월 15일 장충동 식당에서 여성회 관계자들과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재임 당시 여성회 발전을 위해 '좋은 부모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 박규영 전 이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버지니아주로 이주했다. 시카고 거주 당시 '한인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식', 시카고 시청에서의 '이민 사진전'을 개최하고, '한인 이민사' 책자도 발간한 바 있다. 다음은 박규영 전 이사장이 여성회에 보낸 감사 편지글이다.

오랜만에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이 사님을 만나 뵙고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 옛, 현 임원님들, 자리를 주선해 주신 박순자 이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최은주 한인회 회장님, 여전히 여성회 대모이신 권오화 이사장님, 일일이 인사 못드리니 회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감사 인사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몇 분이나 오실 수 있으신줄 모르겠으나 저 보겠다고 오실 분들 생각하여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 하였는데 권오화 전 이사장님께서 대신 해주시어 송구했습니다. 다음 모임일 때 식사값이라도 보태고 싶어 조금 보냅니다. 주신 여성회 책자를 보니 저는 이사 와서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크고 아름다운 행사를 많이 치르시고 사회봉사 활동도 활발히 하셔서 참 기쁩니다. 앞으로도 많은 귀한 사업 잘 처리내실 줄 믿으며 시카고한인여성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 9. 17 박규영 드림



남서부 북클럽 소식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남서부 북클럽이 최선옥 박사님 댁에서 있었습니다. 17명의 회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국의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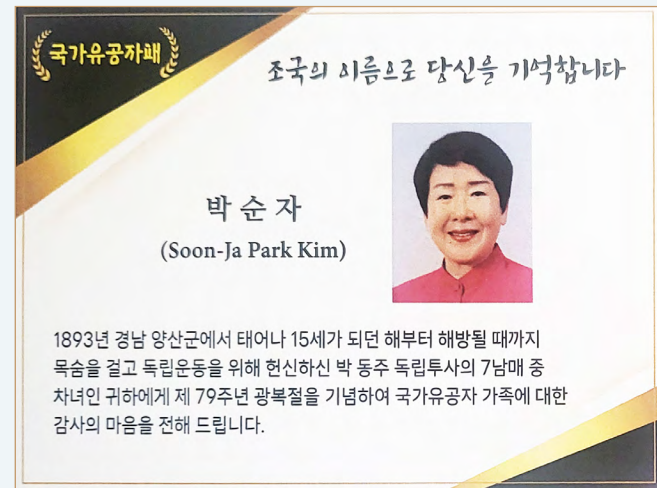
루시 백 이사, 자랑스러운 한인 동포상 수상

루시 백(Lucy Paik) 여성회 이사가 2025년 3월 1일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한인 동포상'을 수상하였다.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물심양면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된 루시 백 이사는, 1965년 미국으로 이민 온 이후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2006년 은퇴하였다.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루시 백(오신길) 이사님, 자랑스러운 한인 동포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박순자 이사장, 광복절 기념식서 감사패 수상

시카고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주최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순자 이사장이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이사장의 아버지 고 박동주 독립투사는 1893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15세부터 해방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살아생전 지식들에게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도(正道)를 견고,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열린다는 세 가지 교훈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정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아버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여성회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박순자 이사장님, 감사패 수여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45회 시카고한인여성회 연례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임: 고애선 회장
취임: 박순열 회장



시카고한인회 최은주 회장 외 이사 및 임원 일동

제35, 36대 시카고한인회를 위해 성원해주신
시카고 한인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37대 시카고한인회의 성공적인 출발과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Phone : 773-878-1900 / 615 N Milwaukee Ave, #11 Glenview, IL 60025 / E-mail: 36kaac@gmail.com

여성회는 시카고의 다양한 단체들과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여성회의 자체 성장은 물론 지역 사회와 상생적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 8.15 광복절행사



2024. 9.14 시카고한인문화원 비스코홀 개관식



2024. 9.20 한인서로돕기센터 두레 모금행사



2024.12. 1 안젤라 라인댄스 연말 파티



2024. 12.6 간호사협회 송년의 밤



2024.12. 7 시카고한인문화원 Annual Gala



2024.12.28 한인회 송년의 밤 '내가 최고야'



2024. 12.28 한인회 송년의 밤



2024.12.22 시카고한국무용단 Gala



2025. 1.24 시카고한인상공회의소 감사의 밤



2025. 3.1 삼일절 기념식 행사



2025. 4. 5 한울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회계 보고 | Accounting Report (7/1/2024~5/31/2025)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4		\$	30,659.73
INCOME			
이사회비	\$	11,300.00	
후원금	\$	2,500.00	
루시백	\$	1,000.00	
박규영 (임원회)	\$	500.00	
박순자 (가정의달 글짓기 행사)	\$	1,0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이선희 기금	\$	5,000.00	
정기이사회, 연례총회	\$	5,120.00	
연례총회 ticket & 이사회 도시락 판매	\$	220.00	
연례총회 후원: 박순열 차기회장, 상싱실버아카데미 (각 \$1,000씩)	\$	2,000.00	
연례총회 후원: 강영희, 제주도민회, 해병대, 한인회, 남동옥 (각\$500씩), 숙명여대(\$400)	\$	2,900.00	
연말 감사의 밤	\$	5,736.00	
박순자, 심정열 도네이션 (선물구입) \$500씩	\$	1,000.00	
Ticket 수입	\$	4,010.00	
Raffle sold	\$	726.00	
회원부	\$	10,320.00	
토요 모듬북 (7/2024~6/2025)	\$	6,720.00	
수요 라인댄스 (7/2024 ~ 3/2025)	\$	3,100.00	
권오화 도네이션	\$	500.00	
봉사부	\$	-	
교육부	\$	2,893.01	
쭈바	\$	2,233.01	
미주한인사 (책 판매 & 등록금)	\$	660.00	
문화부: 시조의 밤 (회비 및 도시락 판매)	\$	840.00	
가정의 달	\$	1,500.00	
후원: 고애선	\$	1,000.00	
후원: 구광자	\$	500.00	
추가 예산 \$3,000			
TOTAL INCOME	\$	47,209.01	
Remaining Balance as of 5/31/2025	\$	23,863.36	
여성회 전체 구좌 발란스 as of 5/31/2025			
Main Operating Account	\$	23,863.36	
여성회 Money Market	\$	25,024.28	
이선희 기금	\$	49,555.34	
합창부 Operating Account	\$	8,218.88	
합창부 CD	\$	103,164.55	
Morgan Stanley (as of 4/30/25)	\$	106,559.20	
Total	\$	316,385.61	

EXPENSE	
홍보/광고비/타단체후원	\$ 3,600.00
한국일보, 중앙일보 창간 축하	\$ 450.00
뉴스 매거진(근하신년, 봄 광고)	\$ 600.00
한국무용단, 한인문화원, 두레센터 / \$500씩	\$ 1,500.00
광고 (기독교방송, 교차로, 한국일보)	\$ 1,050.00
티켓 보조	\$ 2,020.00
두레센터, 한인문화원, 한인회, 한울	\$ 1,020.00
간호협회, 한국무용단, 암환우회	\$ 1,000.00
이선희 기금: 한인회 리모델링 후원	\$ 5,000.00
정기이사회, 연례총회	\$ 7,580.79
가을 이사회 (순서지, 장소비, 도시락, 사례비 등)	\$ 2,874.59
2025 봄 이사회 (Lone Tree, 감사비, 순서지 등)	\$ 3,706.20
2025 연례총회 security deposit (Chevy Chase)	\$ 1,000.00
연말 감사의 밤	\$ 10,724.70
Hilton	\$ 7,846.20
DJ \$900, Photographer \$600	\$ 1,500.00
포인세티아, 선물구입, 뒤풀이	\$ 1,378.50
회원부	\$ 7,542.04
회원부 식사, 간식 등	\$ 1,182.04
라인댄스, 모듬북 감사비 (7/2024~3/2025)	\$ 3,480.00
라댄, 모듬북 장소 사용료 (7/2024~6/2025)	\$ 2,880.00
봉사부: 밀알 장애우 볼링, 양로원 방문	\$ 963.72
교육부	\$ 4,892.28
쭈바 donation to refugee, 수업 경비	\$ 2,696.84
미주한인사 감사료 & 준비물, 경비	\$ 2,195.44
문화부: 시조의 밤 감사료, 장소비, 식사, 준비물	\$ 1,076.00
가정의 달	\$ 4,404.01
Bisco Hall rental, 공연비, photographer	\$ 1,100.00
음식, 준비물, 순서지, 상패, TFT Meeting	\$ 3,304.01
기타	\$ 6,201.84
합창부 Transfer	\$ 2,500.00
Checkbook order, tax return filing & mailing, Annual Report filing, 두레센터 화분	\$ 730.61
임원회의	\$ 2,231.23
사서함 사용료 (7/2024~6/2025)	\$ 500.00
Web hosting	\$ 240.00
TOTAL EXPENSE	\$ 54,005.38

이선희 기금
4.20% (11/22/2025) / \$49,555.34
합창단
4.0% (2/15/2026) / \$21,020.81
4.16% (10/31/2025) \$32,143.74
4.8% (6/5/2025) / \$50,000

(7/1/2025~6/30/2026) Accounting Report | 예산 보고

수입 예산안		지출 예산안	
Donation	\$ 17,000.00	Operating Expense	\$ 10,000.00
일반 후원금	\$ 10,000.00	홍보 및 기관단체 후원금	\$ 5,0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한인문화원 사서함	\$ 500.00
장재철, 장순진 후원금	\$ 5,000.00	정기 임원회, 수련회 및 행사	\$ 3,300.00
		경조사비	\$ 500.00
		세금 보고 및 사무용품	\$ 700.00
Event Income	\$ 27,000.00	Event Expense	\$ 24,500.00
이사회비	\$ 13,000.00	봄, 가을 정기이사회	\$ 4,500.00
연례총회	\$ 7,000.00	연례총회	\$ 7,000.00
연말 감사의 밤	\$ 7,000.00	연말 감사의 밤	\$ 7,000.00
		심해옥 장학금	\$ 2,000.00
		5월 가정의달 행사	\$ 4,000.00
Program Income	\$ 29,500.00	Program Expense	\$ 39,000.00
회원부	\$ 12,000.00	회원부	\$ 11,000.00
골든클럽	\$ 2,000.00	골든클럽	\$ 2,000.00
문화부	\$ 1,500.00	문화부	\$ 2,000.00
합창부	\$ 7,000.00	합창부	\$ 14,000.00
교육부	\$ 2,000.00	교육부	\$ 2,000.00
차세대 교육	\$ 5,000.00	봉사부	\$ 2,000.00
		출판부	\$ 1,000.00
		차세대 교육	\$ 5,000.00
Total Income Budget	\$ 73,500.00	Total Expense Budget	\$ 73,500.00

KAWAC Choir Acct. (7/1/2024~5/31/2025) | 합창부 회계 보고

Beginning Balance as of 7/1/2024 \$ 6,224.61

INCOME	
회비	\$ 5,280.00
후원금	\$ 14,000.00
구광자, 김조숙, 홍명희	\$ 3,000.00
장재철, 장순진	\$ 5,000.00
권오화	\$ 3,500.00
여성회 지원금	\$ 2,500.00
단복	\$ 175.00
신난숙, 유영신	\$ 140.00
유영신	\$ 35.00
TOTAL INCOME	\$ 19,455.00
Remaining Balance as of 5/31/2025	\$ 8,218.88

EXPENSE	
X-Mas	\$ 761.99
지휘자 & 반주자	\$ 600.00
장재철, 장순진	\$ 161.99
사례비	\$ 10,830.00
지휘자 & 반주자	\$ 10,830.00
기타	\$ 5,868.74
장소 사용료	\$ 1,600.00
생일파티 & supplies	\$ 671.21
개학 파티 (2024, 2025)	\$ 2,000.00
악보 카피	\$ 512.53
시카고 풍물학교 도네이션 (1024)	\$ 1,000.00
단복 refund	\$ 85.00
TOTAL EXPENSE	\$ 17,460.73

박순열 미중서부 시카고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의
21대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 미중서부 시카고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전 시카고체육회 단장
전 해병전우회 부총재

강위중



고애선 회장의 노고와 수고를 치하드리며
박순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전 미중서부 숙명여대 동문회 회장 및 이사장

박동옥



박순열 미중서부 시카고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의
21대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미중서부 시카고제주자치도민회 일동



박순열 동문의 시카고한인여성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미중서부 숙명여대 동문회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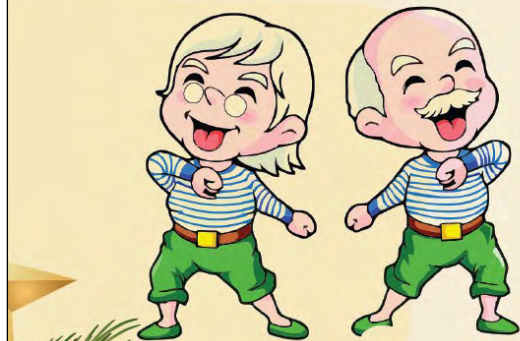


싱싱실버아카데미

Singsing Silver Academy is a non-profit, independent Corp.



**"일리노이 노인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피스: 224-251-8209
대표(유연옥): 224-619-9106
사무장(박순열): 224-628-5841

주소: 8257 W. Harrison St. Niles, IL 60714
E-mail: singsingsilverads1010@gmail.com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곳
싱싱실버 아카데미로 오세요~.
메디케이드를 소지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클래스

라인댄스, 고전무용, 피아노, 성악지도,
스트레치, 근육운동, 가드닝, 핸드폰 강좌,
봇글씨, 각종강의, 뷰티강의(1/month),
하모니카, 크로마하프, 탁구, 배구, 당구

오픈 월-금(오전 8시-오후 2시)
연중무휴 (중요한 국경일만 휴무)

박순열 사무장의 여성회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싱싱실버아카데미 직원 일동



Past Presidents & Chairpersons of the Board | 역대 회장 및 이사장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회장

1대	홍성옥	(1980-1987)	작고
2대	심정열	(1987-1989)	
3대	이온희	(1989-1991)	작고
4대	김성자	(1991-1993)	
5대	최(이)화섭	(1993-1995)	작고
6대	주함숙	(1995-1997)	
7대	김영	(1997-1999)	
8대	권오화	(1999-2001)	
9대	구광자	(2001-2003)	
10대	심해옥	(2003-2005)	작고
11대	강영희	(2005-2007)	
12대	심형란	(2007-2009)	
13대	전명희	(2009-2011)	작고
14대	박규영	(2011-2013)	
15대	최선주	(2013-2015)	
16대	조은서	(2015-2017)	
17대	써니 김	(2017-2019)	
18대	박순자	(2019-2021)	
19대	성유나	(2021-2023)	
20대	고애선	(2023-2025)	
21대	박순열	(2025-2027)	

시카고한인여성회 역대 이사장

1대	고동혜	(1987-1990)	작고
2대	고난경	(1990-1993)	작고
3대	이송옥	(1993-1996)	작고
4대	안순영	(1996-1998)	작고
5대	최선옥	(1998-2000)	
6대	이온희	(2000-2002)	작고
7대	김명숙	(2002-2004)	작고
8대	권오화	(2004-2006)	
9대	최(이)화섭	(2006-2008)	작고
10대	구광자	(2008-2010)	
11대	김성자	(2010-2012)	
12대	심정열	(2012-2014)	
13대	김영	(2014-2016)	
14대	강영희	(2016-2018)	
15대	박규영	(2018-2020)	
16대	육원자	(2020-2022)	
17대	심형란	(2022-2024)	
18대	박순자	(2024-2026)	
차기	고애선	(2026-2028)	

Officers (2023.7-2025.6) | 제20대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

직책/부서	이름	이메일
회장	고애선	aesonkoh@gmail.com
이사장	박순자	sjkim719@msn.com
부회장	제인 전	DreamHomeWithJane@gmail.com
총무	임미라	miraim80@gmail.com
이사회 총무	정정희	junghee.jeong@yahoo.com
서기	박순열	park.soonyeoul@gmail.com
이사회 서기	정지연	jennyjung1031@gmail.com
회계	크리스틴 윤	christine.yoon@bankofhope.com
감사	김미경	michellekim9699@gmail.com
부감사	김현숙	heyhk1@gmail.com
골든클럽	이광자 부장	kwangclee@yahoo.com
	김정아 차장	joycekim92@gmail.com
교육부	허은영 부장	7dobest@gmail.com
	고명주 차장	Spalekoh@gmail.com
문화부	김영숙 부장	hwalim22@gmail.com
	고미숙 차장	Mkochoi@yahoo.com
봉사부	이숙현 부장	sookhyenlee59@yahoo.com
	이은애 차장	eajin920@gmail.com
출판부	김호정 부장	hojeungkim@yahoo.com
	한영숙 차장	ysmangum@gmail.com
합창부	지재란 부장	jaeran1006@gmail.com
	경정옥 차장	croepke@comcast.net
홍보부	박순열 부장	park.soonyeoul@gmail.com
회원부	제인 전 부장	DreamHomeWithJane@gmail.com
	서미선 차장	UniversalTravel02@yahoo.com

편집 후기

지난 일 년의 여성회 모습을 담아내며 여러 가지 소회와 함께 새 회기 연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올해도, 알찬 여성회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밝은 미래를 꿈꿔봅니다.
- 김호정 출판부 부장

가정의 달 행사에서 '훌륭한 아버지상'을 수상하신 두 분의, 반세기를 훨씬 넘긴 빛바랜 결혼사진을 보면서 그 속에 청실홍실 아름다워있을 사랑과 감사와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성회도 올해 박수 치고 싶고 놓치면 아까웠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선택해서 '최고'로 준비한 여성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일 년 동안이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출판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한영숙 출판부 차장

*올해부터는 개인 정보 보호상의 이유로 전화번호 게재를 생략합니다.

여성회 사업 및 행사 계획 | Upcoming events

연중 프로그램

- 여성회 합창단: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지휘 표경진) @ 약속의 교회
- 회원부 수요 라인댄스: 매주 수요일 오후 2:30 (강사 서명혜) @ 시카고한인문화화관 #9820
- 회원부 토요 모듬북: 매주 토요일 오전 11:30 (강사 이애덕) @ 시카고한인문화화관 #9820

2025년

- 8월 제1차 정기 임원회 및 임원 수련회
- 9월 가을 정기 이사회
시카고 교육원과 함께하는 Korean Club Day (교육부)
- 10월 장애우와 함께 하는 볼링대회 (봉사부)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교육부)
- 11월 제2차 정기 임원회
- 12월 연말 감사의 밤
임윤찬 공연 관람 (골든클럽)

2026년

- 1월 제3차 정기 임원회 및 신년 하례식
- 2월 설날 맞이 양로원 방문 (봉사부)
- 3월 제4차 정기 임원회
종이접기 클래스 (교육부)
- 4월 봄 정기 이사회
- 5월 제5차 정기 임원회
가정의 달 행사 (문화부, 봉사부, 교육부, 출판부)
- 6월 제46회 연례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

kawaoc@gmail.com | www.kawac.org | 9925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제21대 시카고한인여성회 임원 | Officers (2025.7-2027.6)

직책/부서	이름	이메일
회장	박순열	park.soonyeoul@gmail.com
이사장	박순자	sjkim719@msn.com
부회장	제인 전	DreamHomeWithJane@gmail.com
총무	임미라	miraim80@gmail.com
이사회 총무	정정희	junghee.jeong@yahoo.com
서기	한영숙	ysmangum@gmail.com
이사회 서기	정지연	jennyjung1031@gmail.com
회계	크리스틴 윤	christine.yoon@bankofhope.com
감사	김미경	michellekim9699@gmail.com
부감사	김현숙	heyhk1@gmail.com
골든클럽	이광자 부장	kwangcleee@yahoo.com
	김정아 차장	joycekim92@gmail.com
교육부	허은영 부장	7dobest@gmail.com
	고명주 차장	Spaleakoh@gmail.com
문화부	정원숙 부장	chungwonsook@gmail.com
	수잔 김 차장	Suzannekim@gmail.com
봉사부	이숙현 부장	sookhyenlee59@yahoo.com
	고미숙 차장	mkochoi@yahoo.com
출판부	김호정 부장	hojeungkim@yahoo.com
	한영숙 차장	ysmangum@gmail.com
합장부	경정옥 부장	croepke@comcast.net
	고희숙 차장	tomsueko@gmail.com
홍보부	정정희 부장	junghee.jeong@yahoo.com
	고애선 차장	aesonkoh@gmail.com
회원부	제인 전 부장	DreamHomeWithJane@gmail.com
	서미선 차장	UniversalTravel02@yahoo.com